

1. 머리말

조선시대 小科인 司馬試 급제자 총수는 생원 24,221명, 진사 23,776명으로 총 47,997명이지만, 최진옥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파악이 가능한 숫자는 전체 급제자의 85.1%에 해당하는 생원 19,675명, 진사 20,974명 총 40,649명이다. 또한 司馬榜目에 거주지가 정확하게 표시된 급제자는 모두 38,386명(94.4%)으로서,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전체 인원의 37.4%인 14,338명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안동과 충주에서 각각 783명(2.04%)과 624명(1.63%)이 나왔다. 이어서 급제자가 많이 나온 곳은 강원도 원주로서 전체 급제자의 1.40%인 573명이다.¹⁾

원주가 이렇게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뜻밖의 결과이다. 특히 서울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한 반면에 제 2 위 이하는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원주 거주자의 다수 급제는 재삼 주목된다. 지금까지 원주는 강원도 감영 소재지였다는 것 외에는 조선사회에서 주목받을 만한 중요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실제로 원주는 토착 양반이 그다지 많지도, 강하지도 않은 곳으로 보인다. 문집이나 큰 학자를 찾기 어렵고, 양반문화의 뿌리도 깊다고 할 수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혹시 사마시 제도나 원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연구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조선시대 원주 양반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금까지 원주의 양반사회에 관련된 글은 한 편도 없다고 한다면, 필자의 과문 탓일 것이다. 따라서 사마방목의 분석을 통해서 원주 거주자의 사마시 급제 경향과 급제자 출신 배경 등을 살펴보는 작업은 원주 양반사회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주는, 사마시 급제자 배출 결과와는 어울리지 않게 양반사회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마방목은 기재 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반사회의 지형도를 대체적이나마 그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鄉案이나 靑衿錄과 같은 기초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원천적 한계와 필자의 불성실 때문에, 거의 사마방목에만 의존한 본 연구는 지역 사례 연구로서 미비하기 짝이 없으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원주 양반사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정확하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 발굴과 수집에 큰 힘을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1) 본 연구에는 무엇보다 최진옥 교수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크게 주었음을 밝히며,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그리고 기본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에서 조사 기록하고, 서울시스템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가 1997년에 개발한 사마방목 CD-ROM에서 얻었다. 최진옥의 논문(<朝鮮時代 生員 進士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오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국역하고, 역시 서울시스템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가 개발한 조선왕조실록 CD-ROM에서 전적으로 찾아냈다.

2. 司馬榜目の 分析

가. 時代別 급제자수

사마방목의 분석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가 완벽하여야 한다. 인조대 이후부터는 사마방목이 1회분만 누락되어 있지만, 태조대부터 광해군대에 이르는 기간의 방목 가운데 다수는 찾을 수 없다. 특히 성종대 이전의 방목은 오히려 빠진 것이 더 많다. 따라서 성종대 이전, 대략 15세기에 해당하는 방목 분석 결과는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며, 그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세종대의 것으로 유일한 1447년의 방목에 원주 출신 2인이 실려 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시대의 문과방목에 실린 급제자 가운데에도 생원과 진사로서 원주 거주자가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 명이 된다.²⁾ 그리고 15세기 급제자 나머지 3인도 3회분이 남아 있을 뿐인 성종대의 것 중에 하나인 1480년 방목에 기재되었다. 전체 급제자에 대한 원주 거주자의 평균 비율인 1.4%에 훨씬 미달하는 성종대부터 선조대까지의 미발견 방목에는 원주 출신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런 현상을 꼭 방목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주의 학문 분위기와 양반문화 등과도 관련된다고 본다.

아래 <표1>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광해군대와 경종대에 급제자가 다른 왕대에 비하여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원주 출신들이 전체 급제자에서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지만, 이 두 시기에는 각각 5.26%와 2.91%에 달하였다. 특히 선조대에는 3,998명이란 대규모 급제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출신자들은 겨우 20명 0.5%에 불과하였고, 광해군대에 급증하였다가 다시 인조대에 23명 1.05%로 떨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향이 발생한 원인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쉽게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두 왕대는 정권다툼이 소용돌이치던 시대였다는 점에 착안해서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광해군대에 급제한 10명 가운데 北人 정권과 관련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3명이다. 그 가운데 김수정은 광해군의 외가 인물로 귀래면에 거주하였고, 이화는 북인 영수 중에 한 사람인 李璽의 從孫姪로서 지정면에 거주하였고, 박홍익은 강원도 유생의 폐모 상소를 주도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 폐모 상소에 동참한 이극성도 원주 출신 진사였지만,³⁾ 그가 합격한 1617년 사마방목은 현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주에 거주하였던 급제자가 모두 친광해군파는 아니었지만,⁴⁾ 적어도 중앙정치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급제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수 급제자가 나온 원인을 집권세력과의 연결에서 찾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2) 태학사에서 발행한 『문과방목』에는 원주 거주자가 85명이 등재되어 있는데(「원주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김성찬의 조사), 이들은 모두 조선후기에 급제한 자들이다. 전기 급제자 가운데 원주 거주자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문과방목의 거주지 조항이 극히 영성함을 알 수 있다.

3) 『인조실록』, 25년 8월 27일(을미) 참조.

4) 최기벽은 그의 동생 기백과 함께 서울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시사를 비판하였다고 금고에 처해졌으며, 그의 아들 직장 문한 역시 극언으로 상소하였다가 죽고 말았다.

도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10명 중 나머지 7명 가운데 중앙정계와 깊은 관련이 있던 인물은 八溪君 鄭宗榮의 손자인 정기풍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숙부인 정목의 딸이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의 만며느리였으므로 원주의 초계 정씨들은 광해군대에는 중앙정계와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⁵⁾ 그밖에 인물 중에서도 중앙정계와 연결되는 성관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문이나 부친 직역 등으로 보아 권력 중심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⁶⁾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최초로 나타나는 급제자들의 성관이 방목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8>에서 보듯이, 이들 가운데 성관이 불명한 1명인 제외한 9명 중에 무려 7명이 이 시기에 사마시 급제자를 최초로 배출한 성관 출신이다. 즉 흥양 오씨, 강릉 최씨, 원주 변씨, 밀양 박씨, 초계 정씨, 남양 홍씨, 한산 이씨들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이 시기에 원주에 정착하였다는 말은 아니며, 강릉 최씨를 제외한 다른 성관들은 꽤 오래 전에 원주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최초 급제자라는 점에는 미발견된 사마방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대에 급제자가 갑자기 증가한 현상 뒤에는 원주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입향 양반가문들이 저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한 사회적 배경도 있었다.

재위 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았던 경종대에 해마다 소과가 시행되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지만, 이 기간에 두 번의 식년시와 두 번의 증광시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다른 왕대의 예에 비추어 특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각 시험마다 평균 197명이 합격하였으므로 급제 액수도 잘 지켜진 셈이다. 원주 거주자들은 1년 식년시에 9명, 증광시에 4명, 3년 증광시에 8명, 식년시에 2명 모두 23명이 경종대에 급제하였다. 이들 23명의 본관은 14개로 특정한 유력 성관이 급제자수를 광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친 직역은 11명이 유학이나 학생이고, 통훈대부가 3명, 통덕랑이 4명, 진사와 생원이 5명으로 역시 특별히 유력한 가문 출신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숙종 말엽이나 영조 초엽에 원주 출신으로 중앙정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들도 찾기 어렵다. 승지 홍만기가 그래도 유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도 남인으로서 노론에게 크게 견제 당하였으므로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론과 남인이 경종대의 정계를 주도하였으므로 남인이 많았던 원주 양반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마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1> 王代別 급제자수

5) 정종영의 손자인 정각도 광해군 10년 동안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정범조, 『해좌집』 권지이십사, 비명, 좌부승지정공묘비명, 524면).

6) 스스로 “嶺東西俱吾鄉”, “吾原州”라고 기록하고, 어머니 무덤이 원주에 있던 허균은 강릉과 원주는 國初에 모두 名相이 많았으나, 中宗 이후는 절무하다고 하였다(<성소부부고>, 『허균전집』, 아세아문화사, 230면)

	재 위 년간	실시 회수		원 주		전 국		비 율 (A/B)
		전체	현 전 방목	급제자수 (A)	비율 (A/573)	급제자수 (B)	비율 (B/40649)	
태조	6	2						
정종	2	1						
태종	18	7	1			99	0.24	
세종	32	10	1	2	0.34	198	0.49	1
문종	2	2						
단종	3	2						
세조	13	5						
예종	1	1	1			200	0.49	
성종	25	8	3	3	0.52	469	1.15	0.6
연산	12	5	4	1	0.17	780	1.92	0.12
중종	38	13	10	8	1.39	2001	4.92	0.39
명종	22	8	7	9	1.57	1397	3.44	0.64
선조	41	17	14	20	3.49	3998	9.84	0.5
광해	15	9	7	10	1.71	190	0.47	5.26
인조	26	11	11	23	4.0	2189	5.39	1.05
효종	10	5	5	15	2.61	999	2.46	1.50
헌종	15	7	7	16	2.79	1392	3.42	1.14
숙종	46	27	27	89	15.5	5401	13.29	1.64
경종	4	4	4	23	4.0	788	1.94	2.91
영조	52	25	24	70	12.2	4795	11.80	1.45
정조	24	11	11	39	6.8	2263	5.57	1.72
순조	34	18	18	73	12.7	3601	8.86	2.02
헌종	15	8	8	43	7.5	1601	3.94	2.68
철종	14	6	6	24	4.8	1261	3.10	1.90
고종	31	17	17	105	18.3	7027	17.29	1.49
계	502년	230회	186회	573명	100%	40,649명	100%	평균 1.4%

* 실시 횟수와 전국 부분은 최진옥의 논문 표<2-2>에서 인용

* 여기에서는 거주지가 밝혀진 자들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급제자의 숫자도 40,649 명보다 적은 38,386명이며, 그에 따라 원주 거주로 확실하게 밝혀진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갔다. 원주 급제자가 전체 급제자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1.40%인데, 여기에서는 1.49% 이다. 정확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경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사실은, 1710년부터 1739년까지 30년 동안은 급제자가 61명으로 19 세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이 급제한 한 세대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원 인에 의해서 급제자가 경종대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주 양반사회의 변화와 발전, 학문의 속성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높은 급제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61명의 급제

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던 1680년부터 1709년 한 세대를 이 기간에 포함한 17세기말과 18세기초 60년 동안이 원주 양반사회의 최고 전성기라고 보아도 될 듯하다. 사실 이 60년을 전후한 세대는 급제율이 크게 떨어진다. <표2>에 나타나듯이, 19세기 순조대 이후에는 급제자가 급증해서 573명 가운데 44%에 달하는 345명이지만, 이것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현상이며, 과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엄정하였던 이 시기에 122명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였던 19세기 전반 및 후반에 각각 116명과 129명이 배출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숙종, 경종, 영조 3대에 걸친 17세기말과 18세기초는 19세기 후반 고종대를 제외하고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급제자가 나온 시대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제자의 증가와 집중은 원주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급제자가 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최진옥의 논문 <표5-13>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 걸쳐 50%를 전후하였으나, 그 후로는 급격히 추락해서 17세기 후반 46.25%, 18세기 후반 36.03%, 19세기 후반에는 16.04%에 이르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거주 급제자들도 크게 줄어들어, 경상도는 16세기 후반 15.85에서 17세기 전반 13.05%로, 전라도는 17세기 전반 12.64%에서 17세기 후반 10.34%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서울, 전라도, 경상도 거주자의 감소는 일정한 액수가 정해진 시험에서는 다른 지역 응시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 공백을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가 채웠다는 것은 재경사족들이 서울과 가까운 충청도와 경기도로 대거 이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도 총주에서는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624명의 급제자가 나왔지만, 현종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원주보다 10명이 더 많은 117명만이 나왔을 뿐이며, 특히 현종대 23명에서 숙종대에는 대거 134명이나 합격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급증도 괄목할 만하다. 351명의 급제자를 배출해서 다수 급제 순위 13위인 양주는 현종대 이전에는 겨우 22명, 그리고 345명을 내어서 14위에 오른 광주는 30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재경사족의 이주 결과라고 해석되며, 그리고 그들의 낙향을 촉진한 것은 당쟁 등 정치계의 변화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숙종대 이후에 지방 출신들이 대거 입격한 원인은 “향촌사회에 뿌리를 둔 재지사족이 점점 성장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당쟁의 심화와 노론의 전제라는 정치적 맥락, 학문의 선진지 쇠퇴, 생원과 진사의 지위 하락 및 소과 급제의 필요성 감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어떤 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가는 각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조 34년에 이르러 바뀌기는 하였지만,⁸⁾ 원주처럼 감영 소재지였던 경상도 상주와, 비록 郡이나 많은 인재가 배출된 선산을 사례로 살펴보자. 상주 거주 급제자의 총수는 470명으로 경상도에서는 안동 다음으로 많은 숫자지만 원주보다 103명이 적다. 그러나 조선전기부터 인조대까지는 53명인 원주보다 배나 많은 121명이 급제하였다. 그러다가 효종대에 3명, 현종대에 16명으로 떨어졌다가 숙종대에는 3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 이후 왕대에도 원주보다 훨씬 적다가 철종대와 고종대에 이르러 엇비슷해졌다. 이런 감소가 감영 이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 너무 그 폭이 크다. 그리고 선산 역시 328명으로 경상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급제자를 내었는데, 명종 이전까지만 하여도 원주보다 배가 많은 50명이 입격하였다. 이후 선조대부터 원주에 훨씬 못미치

7) 최진옥, 앞의 논문, 153면.

8) 이수건, 『조선시대지방행정사』, 1989, 민음사, 189-90면.

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조선전기에 경상도 지역에서 다수의 급제자가 나온 까닭은 성리학의 전파가 일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조선후기에는 급제자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당쟁에 패배한 남인의 지역적 기반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안동이 783명의 급제자를 내서 서울에 버금갈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격변을 이겨낼 수 있던 어떤 특수한 요인 덕분이 아닌지 추측된다.⁹⁾

이와 같이 원주와 경상도 지역을 비교한 결과, 원주는 분명히 조선후기에 들어 경상도 지역과는 다르게 급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요인으로 우선 정치적 변화를 손꼽을 수 있지만, 원주도 이른바 “南人 8大家”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록 평산 신씨나 덕수 이씨처럼 西人 가문도 있었을지라도, 유력한 가문에는 나주 정씨, 청주 한씨, 풍산 홍씨¹⁰⁾ 등 남인이 주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기호남인과 영남남인의 정치적 처지가 동일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 변화라는 변수는 원주 양반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으로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다수의 과거 급제자가 배출된 것과는 달리 중앙관계에서 높은 벼슬을 한 원주 출신은 별로 없으며, 그나마도 풍산 홍씨와 나주 정씨와 같은 남인 가문에서 고위관리가 나왔다.

원주도 경기도와 충청도와 함께 서울과 가까운 중부지방에 속하므로 서울에서 이주한 양반가문이 많았다. 원주로 입향한 다수의 유력 양반가문은 늦어도 17세기에는 이미 정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청주 한씨는 16세기말에, 나주 정씨는 17세기 중엽에, 풍산 홍씨 17세기 후반에 입향하였고, 초계 정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등은 훨씬 이전에 재지사족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덕수 이씨 등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향촌사회에서의 입지는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이처럼 17세기말과 18세기초에 원주 거주 급제자들이 많았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서울 등 타 지역의 급제자 감소라는 유리한 조건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이것은 원주만이 아니라 다른 중부나 북부 지방에도 해당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수 급제자 배출은, 조선후기에 원주 거주 급제자가 원주 원씨나 이씨와 같은 토성보다는 입향 양반 성관에서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경사족을 비롯한 다른 지역 양반의 지역적 이주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유력 성관들이 시기적으로 일찍 원주에 정착하였다는 점에서 그 점만을 유독 강조하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당파적 이점 덕분이었던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간 성급한 감은 있지만, 급제자 급증은 새로운 양반의 입향과 토착 양반사회의 성장, 또한 그에 따른 양반문화의 발전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강원도와 원주의 급제자를 <표2>를 통해서 살펴보자. 16세기 후반에 54.54%라는 예외가 있지만, 17세기까지만 하여도 원주의 급제자는 강원도 전체 급제자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선 자료 부실을 들 수 있다. 왜냐 하면, 16세기 후반에 강원도 전체 급제자가 44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16세기 전반의 64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17세기 전반의 132명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의 현전 사마방목은 원주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합격한 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282명

9) 전체 급제자에 대한 안동 거주자의 평균 비율은 1.93%였다. 각 왕대별로 그 비율을 내본 결과, 인조대 이후 평균 급제 비율보다 떨어졌던 왕대는 현종대 1.8%, 경종대 1.14%, 철종대 1.9%, 고종대 1.38%였다. 이것으로 보아, 안동의 급제율은 정치적 변화를 크게 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0) 풍산 홍씨는 서울이 아니라 충주에서 입향하였다.

11) 현전하는 사마방목은 14세기 0%, 15세기 21%, 16세기 80.5%, 17세기 94%, 18세기 98%, 19세기 100%이다(최진옥, 앞의 논문. <표1-1>, 9면 참조)

의 급제자를 낸 강릉에서는, 급제자수가 역전되었던 인조대 이전까지는 원주의 76명보다 훨씬 많은 108명의 급제자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54.54%라는 16세기 후반의 통계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며, 17세기 전반까지 원주는 강원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었고, 강릉이 강력한 토착양반을 기반으로 다수 급제자를 내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극소수만이 합격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217명으로 배출 순위 3위인 춘천은 16세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3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군현에서는 1명도 없거나 1,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원주는 강원도에서 부동의 지위를 차지한다. 이후 원주는 상층세가 뚜렷한데, 강원도의 증가율은 미미하다. 17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동안 강원도의 증가는 전적으로 원주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역시 다음에도 원주 거주자는 강원도 전체 급제자의 40%를 넘어 50%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주 양반사회의 변화와 성장, 학문의 발전이며, 더욱이 조선후기에는 원주가 명실상부한 강원도 감영 소재지가 되었던 덕도 있었다.

이런 압도적인 경향은 19세기 전반까지만 이어졌고, 19세기 후반인 철종대와 고종대에는 126명이라는 최대의 급제자를 내었지만, 오히려 강원도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떨어졌다. 이와는 달리 감소 추세에 놓여 있던 강릉이 69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강원도의 기타 지역은 이 시기에 급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춘천은 철종대에 16명과 고종대에 58명 모두 74명이 합격해서 전체 급제자의 34%가 19세기 후반에 집중되었다. 여타 지역도 이와 비슷해서 흥천 81명 중 40명, 철원 52명 중 27명, 횡성 77명 중 23명, 영월 36명 중 11명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 급제자의 4% 정도에 지나지 않던 강원도 거주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6%에 달하게 되었다.

<표2> 半世紀別 급제자수

	원 주		강 원		전 국		비 율 (A/C)
	급제자수 (A)	비율 (A/573)	급제자수 (B)	비 율 (A/B)	급 제 자 수(C)	비율 (C/38386)	
15C	5	0.87	29	17.24	575	1.5	0.87
16C전반	12	2.09	64	18.75	2652	6.9	0.45
16C후반	24	4.19	44	54.54	2594	6.8	0.92
17C전반	35	6.10	132	26.51	4331	11.3	0.80
17C후반	98	17.10	200	49.00	5377	14	1.82
18C전반	77	13.44	206	37.37	5173	13.5	1.49
18C후반	77	13.44	162	47.53	4455	11.6	1.49
19C전반	116	20.24	273	42.49	5399	14	2.14
19C후반	129	23.51	470	27.44	7830	20.4	1.65
	573	100%	1,580	36.26	38,386	100%	평 균 1.49%

* 강원도와 전국의 급제자수는 최진옥의 논문 표 <5-13>에서 인용

나. 姓貫別 급제자수

<표3> 성관별 급제자수

원주 원	51	청주 한	43	전주 이	42	나주 정	42	밀양 박	34
원주 이	24	덕수 이	23	초계 정	21	평산 신	20	풍산 홍	20
안동 권	19	한산 이	18	김해 김	14	연안 김	13	강릉 최	12
여흥 민	11	남양 홍	10	경주 김	9	전의 이	8	경주 손	7
선산 김	7	성주 이	6	창원 황	5	광주 이	4	반남 박	4
평강 채	4	함평 이	4	광산 김	4	안동 김	3	순흥 안	3
영해 신	3	창령 성	3	강릉 김	3	횡성 조	3	청송 심	3
파평 윤	3	익흥 이	3	예안 이	3	원주 변	2	임천 조	2
경주 이	2	순창 조	2	양천 허	2	진주 강	2	단양 우	2
대구 서	2	목천 상	2	영일 정	2	청주 곽	2	우계 이	2
해주 오	2	횡성 고	2	진주 유	2	연안 이	1	재령 이	1
전주 유	1	전주 최	1	진도 김	1	진천 송	1	원주 고	1
의령 남	1	인동 장	1	인천 채	1	곡산 한	1	사천 목	1
장수 황	1	동북 오	1	배천 조	1	수원 백	1	안악 이	1
예안 김	1	청주 경	1	충주 안	1	추계 추	1	충주 지	1
팔거 도	1	한양 조	1	평창 이	1	아산 박	1	여산 송	1
풍양 조	1	합천 이	1	해주 최	1	해평 윤	1	해풍 김	1
홍양 오	1	미 상	1						

* 왕대별 각 성관의 급제자수

선조 이전(23), 원주 원 11명, 원주 이 5명, 익흥 이 2명, 단양 우 1, 평창 이 1, 장수 황 1
김해 김 1, 미상 1

선조대 (20), 원주 고 1, 횡성 1, 청주 곽 1, 충주 1, 김해 김, 경주 김 1, 진주 유 1, 원주
원 4, 전주 이 4, 원주 이 4, 익흥 이 1명.

광해군대(10) 홍양 오 1, 강릉 최 1, 원주 원 1, 원주 변 1, 밀양 박 1, 초계 정 1, 김해 김
1, 남양 홍 1, 한산 이 1, 미상 1.

인조대(23), 원주 원 4, 원주 이 3, 안동 권 1, 단양 우 1, 전주 이 3, 청주 한 1, 예안 2, 창
원 황 1, 강릉 최 2, 초계 정 3, 한산 이 1, 횡성 고1.

효종대(15), 강릉 최 1, 순창 조 1, 양천 허 1, 여흥 민 1, 예안 이 1, 원주 원 3, 원주 이 2,
전주 이 2, 초계 정 1, 합천 이 1, 해주 오1.

현종대(16) 강릉 최 1, 경주 김 1, 나주 정 3, 밀양 박 1, 양천 허 1, 원주 원 2, 원주 이 1, 재령 이 1, 창원 황 1, 청주 한 3,

숙종대(89) 강릉 최 1, 강릉 김 1, 경주 김 1, 곡산 한 1, 광산 김 1, 광주 이 2, 김해 김 2, 나주 정 7, 덕수 이 1, 밀양 박 8, 배천 조 1, 사천 목 1, 성주 이 3, 순창 조 1, 안동 권 1, 여흥 민 1, 예안 김 1, 우계 이 1, 원주 원 6, 원주 이 2, 원주 변 1, 전주 최 1, 진주 유 1, 창원 성 2, 청주 경 1, 청주 한 10, 초계 정 2, 파평 윤 1, 팔거 도 1, 평강 채 2, 평산 신 1, 풍산 홍 2, 한산 이 1, 횡성 조 3, 전주 이 17.

경종대(23) 경주 이 1, 광산 김 1, 광주 이 1, 김해 김 2, 나주 정 1, 남양 홍 1, 목천 상 1, 밀양 박 4, 성주 이 1, 원주 원 1, 원주 이 1, 진주 유 1, 초계 정 4, 평산 신 1, 청주 한 1, 해평 윤 1.

영조대(70) 강릉 최 1, 경주 김 1, 광산 김 1, 김해 김 2, 나주 정 4, 덕수 이 5, 밀양 박 10, 선산 김 1, 순흥 안 2, 안동 권 1, 안악 이 1, 연안 김 1, 원주 원 3, 우계 이 1, 원주 이 2, 의령 남 1, 전주 이 2, 창원 황 1, 청주 한 7, 초계 정 5, 파평 윤 1, 평강 채 2, 평산 신 3, 풍산 홍 5, 한산 이 7.

정조대(39) 강릉 최 1, 나주 정 2, 덕수 이 1, 밀양 박 4, 선산 김 2, 성주 이 1, 안동 권 5, 여흥 민 2, 연안 김 1, 영해 신 2, 원주 원 1, 원주 이 1, 전주 이 3, 창원 황 2, 청주 한 4, 평산 신 3, 풍산 홍 3, 한산 이 1, 함평 이 1.

순조대(73) 강릉 최 2, 경주 손 2, 광산 김 1, 김해 김 1, 나주 정 8, 남양 홍 4, 덕수 이 2, 밀양 박 4, 선산 김 1, 성주 이 2, 안동 권 4, 여흥 민 1, 연안 김 6, 영일 정 2, 원주 원 7, 원주 이 1, 임천 조 1, 전의 이 2, 전주 이 2, 청송 심 1, 청주 한 6, 초계 정 2, 평산 신 5, 풍산 홍 3, 함평 이 2.

헌종대(43) 강릉 최 1, 강릉 김 1, 경주 손 1, 광주 이 1, 김해 김 2, 나주 정 5, 남양 홍 1, 덕수 이 2, 밀양 박 1, 반남 박 2, 수원 백 1, 안동 권 1, 안동 김 1, 원주 원 1, 임천 조 1, 전의 이 2, 전주 이 1, 청주 한 4, 초계 정 2, 평산 신 4, 풍산 홍 3, 한산 이 2, 함평 이 1.

철종대(24) 강릉 최 1, 경주 손 1, 나주 정 4, 덕수 이 5, 반남 박 1, 여흥 민 1, 연안 김 1, 영해 신 1, 원주 원 1, 전주 이 2, 진천 송 1, 청송 심 1, 청주 한 1, 풍산 홍 2, 한산 이 1.

고종대(105) 강릉 김 1, 경주 김 5, 경주 이 1, 경주 손 3, 김해 김 2, 나주 정 8, 남양 홍 3, 대구 서 2, 덕수 이 7, 동북 오 1, 밀양 박 1, 반남 박 1, 선산 김 4, 순흥 안 1, 아산 박 1, 안동 권 5, 안동 김 1, 여산 송 1, 여흥 민 5, 연안 김 3, 원주 원 6,

원주 이 1, 인동 장 1, 인천 채 1, 전의 이 4, 전주 이 6, 진도 김 1, 진주 강 2, 창원 황 1, 청송 심 1, 청주 곽 1, 청주 한 6, 초계 정 1, 추계 추 1, 총주 지 1, 파평 윤 1, 평산 신 2, 풍산 홍 2, 풍양 조 1, 한산 이 4, 한양 조 1, 해주 오 1, 해주 최 1, 해풍 김 1.

급제자 배출 상위 5개 성관인 원주 원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나주 정씨, 밀양 박씨의 급제자 총수는 212명으로 전체 급제자의 37%에 달한다. 그리고 20명에서 29명 사이의 급제자를 낸 원주 이씨, 덕수 이씨, 초계 정씨, 평산 신씨, 풍산 홍씨 5개 성관은 총 108명을 배출해서 18.8%, 그리고 10명에서 19명의 급제자가 나온 안동 권씨, 한산 이씨, 김해 김씨, 연안 김씨, 강릉 최씨, 여흥 민씨, 남양 홍씨 7개 성관은 총수 97명으로 16.9%를 차지하였다. 이상 17개 성관에서 417명이 급제해서 전체 급제자의 72.8%를 점하였다. 그밖에 10명 이하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미상 1개를 제외한 총 69개이며, 155명의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이다.

10명 이상 급제자를 낸 유력한 17개 성관이 전체 86개 성관 가운데 19.8%에 불과하지만 전체 급제자의 72.8%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조선이 극심한 신분차별적 사회였음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사회적 불평등이 대단히 컸음을 말한다. 더욱이 상위 5개 성관이 나머지 유력 성관 12개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37%를 점유하였다는 것은 양반신분 내에서도 소수만이 과도적인 지배집단에 소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신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급제자를 전혀 배출하지 못한 성관도 다수 있었으며, 혈족집단은 컸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도 많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불평등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더욱이 각 유력 성관에서도 연속으로 급제자를 배출하였던 家系는 2,3개 정도이며, 그나마도 1,2개의 특정 가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그 불평등은 유력 양반 성관에서조차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30개였다.¹²⁾ 여기에 원주 유력 성관 9개가 포함되어 있다. 청주 한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평산 신씨, 안동 권씨, 한산 이씨, 김해 김씨, 여흥 민씨, 남양 홍씨가 그들로서 이런 면에서 전국적 大姓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유력 성관인 원주 원씨, 나주 정씨, 원주 이씨, 덕수 이씨, 초계 정씨, 풍산 홍씨, 연안 김씨, 강릉 최씨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대성관의 원주 거주 급제자는 211명, 그렇지 않은 원주의 小姓貫은 206명이다. 그리고 대성관이 전체 원주 거주자의 36.8%에 달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 하여도 아주 큰 비중이지만, 여기에 30개 대성관에 속하였으나 원주에서는 유력 성관에 들지 못한 21개 성관들의 급제자수를 합치면, 대성관의 비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대성관의 전국 지배가 원주에서도 관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선사회의 불평등성과 과도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사마방목에 나타난 성관은 1,442개라는 사실을 보면, 이런 점은 더욱 뚜렷하게 인식될 것이다.

9개 대성관과 8개 소성관의 세기별 급제자수를 살펴보면, 대성관은 16세기 5명, 17세기 54명, 18세기 69명, 19세기 83명 총 211명이며, 소성관은 15세기 4명, 16세기 21명, 17세기 41명, 18세기 52명, 19세기 88명 총 206명이다. 다른 대성관보다 일찍 원주로 들어온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와 밀양 박씨가 17세기부터 급제자수를 대거 배출하여 소성관을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이

12) 최진옥, 앞의 논문, 104-9면.

런 우위를 18세기까지 계속 지키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소성관에 약간 밀린 까닭은 소성관으로 분류된 나주 정씨가 무려 25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예외를 감안한다면, 대성관은 19세기까지도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성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19세기에 이르러서도 밀양 박씨를 제외하고는 급제자가 계속 증가하였던 것이 대세라는 점이다. 이것이 과연 소수 유력 가문의 별얼화라는 조선후기의 변화상이 원주 양반사회에서도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高宗代 급제자가 급증한 결과인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경전이 주요 시험과목인 생원과 詞章에 중점을 두는 진사의 배출 경향은 그 지역의 학문 경향을 말해 준다고 한다. 서울처럼 교육 여건이 좋고 사장을 중시하던 곳에서는 진사가 많이 나오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생원이 훨씬 다수이며, 그 가운데 있는 중부 지방은 양자의 비율이 엇비슷하다.¹³⁾ 중부지방인 원주도 지역의 경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데 총계에서는 생원과 진사의 숫자가 11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것은 19세기에 들어서 종전과는 달리 진사가 19명이 더 급제하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준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로 원주의 학문 경향이 중부지방의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과거가 엄정한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시대에, 생원보다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진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표4>

세기	15	16	17	18	19	계
생원	3	22	76	78	113	292
진사	2	14	57	76	132	281

급제자의 직역은 전국적으로도 96.57%가 幼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 거주 급제자들의 98%가 유학이었다. 그 외에 교관과 업유가 각각 2명과 3명이 있었고, 직역 미상인 자도 몇 명 보인다. 幼學의 신분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원주의 사마시 급제자들은 양반 출신임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비양반들의 급제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19세기 후반의 급제자 가운데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는 소과도 그렇지만 대과도 부친이나 혈족의 영향력이 개입

13) 위의 논문, 125-127면. 서울처럼 진사가 더 많이 급제하였던 개성, 평양, 해주 등을 교육 여건 좋은 곳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주자학의 사회 파급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울 역시 闕闕들이 대를 이어 가며 벼슬길에 나섰기 때문에 주자학을 독실하게 공부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될 소지가 적지 않았다. 연대기나 개인의 기록에 나타나는 과거의 문란상은 이점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 그리고 혈족의 지위가 높으면, 다시 말해서 부친 등 지친이 고위관리라면, 급제 이후 관계 진출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는 순탄할 것이다. 그 외에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학문적 여건도 훨씬 좋았을 것은 분명하다. 이런 조건은 결국 지위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응시자 개인의 능력에 입각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과거제도와는 거리가 있었던 현실이었다.

원주 거주자들의 부친의 직역은 유학부터 시작해서 極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유학과 학생이 총 221명으로 가장 많고, 생원 40명, 진사 49명이다. 文散階에서는 정 3 품 당하관인 通訓大夫가 93명으로서 가장 많아 17개 유력 성관에서 78명, 기타 군소 성관에서 15명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통훈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 34.96%에 이른다. 전국과 원주를 비교하면, 원주 거주자 부친의 직역이 전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마방목을 통해서 부친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는 30,001명인데, 직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품계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반면 원주는 6명을 제외한 567명의 부친 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과 원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문무 품계가 전혀 없는 학생과 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은 47%인데, 원주는 38.6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국 평균과 근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정 1 품 상위관 대광보국승록대부부터 중 2 품 하위관인 가선대부까지는 15명, 그리고 정 3 품 당상관인 통정대부는 그보다 적은 6명이다. 武散階는 정 3 품 상위관인 절충장군과 하위관인 어모장군이 각각 6명씩이다.

아래의 표는 17개 유력 성관에서 중 4 품 이상으로 문반은 大夫, 무반은 將軍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보았다. 다만 사마방목에 기재된 품계는 급제자가 응시할 당시의 부친 품계이기 때문에 후에 승품하였을 가능성은 크고, 또한 사마시 급제자 부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성관 전체적인 관리의 숫자나 지위, 족세의 실제적인 부침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무산계는 문산계의 10%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 마디로 철저한 문반 위주의 관료사회였던 조선왕조의 특성이 원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별로 약간 변하기는 하지만, 문반의 세습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성관을 비교하면, 토성인 원주 원씨와 이씨가 다른 입향 성관보다 고급 문반을 별로 배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원주 이씨의 경우에는 아주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경향은 자료가 거의 조선후기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조선전기에는 상경종사하였던 인물이 많았으나 자료가 부실한 토성은 약세를 면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토성들이 문반보다는 무반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하였고, 그런 가계에서는 무반직을 세습하다시피 하였지만, 문반 쪽으로는 거의 진출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무반으로 출세한 인물들을 이들의 족보와 가계 기록에서는¹⁴⁾ 많이 찾을 수 있다. 하여튼 고위 문반직이 적었다는 것은 이들 토성에게 강한 토착성을 부여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 『元氏家乘』에는 절충장군 이상의 고위무반을 역임한 인물들이 문반보다 훨씬 많이 실려 있다.

<표5> 부친의 직역이 문산계 종 4 품 이상

	원주원	청주한	전주이	나주정	밀양박	원주이	덕수이	초계정	평산신	안동권	풍산홍	한산이	김해김	연안김	강릉최	여흥민	남양홍	도 합
15C전반																		
15C후반																		
16C전반																		
16C후반			3			1												4
17C전반		1	3					1				1						6
17C후반	5	5	7		1	1		1	1		1		1		3			26
18C전반		1		2	1		1	1			3		1					10
18C후반	1	2	1	2	2		2		2	1	3					2		18
19C전반	4	5	1	8	1		2	1			2			2			1	27
19C후반		2	3	4			3			1	2	2	1	1		2		21
도 합	10	16	18	16	5	2	8	4	3	2	11	3	3	3	3	4	1	112

<표6> 부친의 직역이 무산계 종4품 이상

	원주원	청주한	전주이	나주정	밀양박	원주이	덕수이	초계정	평산신	안동권	풍산홍	한산이	김해김	연안김	강릉최	여흥민	남양홍	도 합
15C전반																		
15C후반																		
16C전반																		
16C후반	1					1												2
17C전반								1				1						2
17C후반			1															1
18C전반		1			1													2
18C후반					1													1
19C전반					1						2					1		4
19C후반				1														1
도 합	1	1	1	1	3	1		1			2	1				1		13

3. 급제자 배출의 요인과 배경

가. 강원도와 원주의 이점

생원 初試인 각도 鄉試의 試取 인원이 처음으로 정해진 것은 세종 원년으로, 강원도는 황해도·평안도·함경도와 동수인 30명이었으며, 서울은 200명, 경상도 80명, 충청도 60명, 전라도 60명 총 520명이었다.¹⁵⁾ 이때 처음 정해진 30명의 정원은, 세종 8년 평안도 등 여러 도의 정원을 늘릴 때도 변동이 없었지만, 몇 년 뒤에는 강원도도 평안도와 마찬가지로 문무과와 생원시 모두 50명을 뽑게 되었다.¹⁶⁾ 그러나 단종 원년 복구된 진사시의 향시 시취 인원은 45명이었고, 『經國大典』에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향시 정원도 45명으로 세종과 문종 연간에 5명이 감축된 것이다. 『經國大典』상에 규정된 다른 도 향시의 시취인원은 서울 200명, 경기도 60명, 경상도 100명, 충청도와 전라도 각 90명, 황해도와 함경도 35명, 평안도 45명 도합 700명이었다.

이와 같이 각도의 시취 인원을 결정한 기준은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응시 자격을 독점한 거주 양반의 숫자와 학문 분위기와 정치적 향배 등 다양한 요건을 참조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각도 사이에는 얼마나 차등이 있었는지도 분명히 알 길도 없다. 그러나 세종 4년 강원도 관찰사는 강원도가 땅이 궁벽하고 사람이 없어 문과와 생원의 향시에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아 그 수를 감하였지만, 이제는 교도를 파견하고 학교를 세워 인재가 많이 나오니 향시의 정원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계청하였던¹⁷⁾ 사실을 보면, 조선초기 강원도의 향시 인원은 교육 환경이나 인구 측면에서 각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다. 이것은 현대 각도의 인구분포를 감안한다면, 더욱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중기 강원도를 비롯해서 황해도·평안도·함경도의 생원초시의 급제자수는 130명으로 종전보다 30명이 감소되었던 까닭도 이런 점에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⁸⁾

이렇게 강원도의 시취 액수가 인재에 비하여 많다고 여겨져 경기도·충청도·경상도와 같은 인접한 도에서 온 赴學者들이 外鄉, 婁鄉, 親鄉이라는 구실로 응시하던 예가 많았다. 예를 들어, 숙종 25년(1699)에 실시된 강원도 진사시 초시에 입격한 이진화 등 13인은 누적으로 입격방에서 발거당하였다.¹⁹⁾ 또한 비거주의 혐의가 질더라도 호적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자격자로 처리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과거제도상으로는 응시자의 거주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였을지라도, 다른 지역 시험, 예컨대 한성시처럼 경쟁률이 높은 시험보다는 손쉬운 강원도 향시를 보는 자들은 조선후기는 물론 초기부터 많았다.²⁰⁾ 이런 현상은 물론 강원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15) 조좌호, <이조사마시고> 상, 성대논문집 14, 148-50면.

16) 『세종실록』 55, 14년 1월 14일(갑술)

17) 『세종실록』 18, 4년 12월 5일(무자)

18) 『인조실록』 19, 6년 7월 17일(병자)

19) 『科擧臚錄』 3, 3월 10일. 그런데 당해자인 이진화는 1710년 생원에 합격하였다.

20) 『세종실록』 19, 5년 3월 16일(정유)

“주부(注簿) 이효지(李孝之)는 조사(朝士)로서, 외방(外方)의 향시(鄉試)에 나아가서 수양 대모(收養大母)의 병을 보살핀다고 거짓말하고 원주(原州)로 돌아갔는데, 한성시(漢城試)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로 본도(本道)의 향시(鄉試)에 갔으니, 죄를 과(科)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관직을 파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는 충청도와 황해도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분묘나 농장이 소재한다는 핑계로 호적을 옮기고 향시에 응거하는 서울 거주자들이 많았

다른 도에서도 일어났다.

강원도, 그 중에서 원주가 가진 이점은 지리적인 것이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확연히 나누어진다. 따라서 영동지방의 유생들은, 강원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좌도와 우도로 분리해서 과장을 설치해 달라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조정에서는 이미 조종조부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강원도 26 개 군현 중 영동에는 다만 9개 군현만 있고 영서의 유생 숫자가 영동의 배가 되기 때문에 分試하는 경우 入格 액수를 나누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향시 分設을 허가하지 않았다.²¹⁾ 강원도의 이런 지리적 불편은 원주 거주자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원주는 서울과도 근접하기 때문에 함경도의 응시자처럼 서울 왕래의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²²⁾

그렇다고 해서 원주에서만 향시가 치러진 것은 아니었다.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도내 19개 군현에 都廳을 설치하고 차례에 따라 향시를 돌아가며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조 27년(1751)에는 여기에 빠진 철원·회양·이천·평강·금화·안협·금성 등 7읍의 유생들은 가까운 곳이라야 3,4일정, 먼 곳은 8,9일정이나 되는 과장을 가기에는 여러 모로 힘들다고 호소하여 도회관은 이들 읍도 윤정에 넣으라는 조정의 조처를 얻어내었다.²³⁾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적어도 강원도 내에서는 과거시행상 동등한 응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원주가 가진 이점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감영 소재지로서 감사와 도사는 물론 향시에 관련된 기타 관원들이 많았으므로 시험에 유리한 조건과 정보가 은밀히 유통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 예로 성종과 중종 연간에 감사의 관문을 위조해서 가짜 시험 문제를 시관들에게 보낸 사건을 들 수 있다.²⁵⁾ 이와 같은 향시에서의 부정행위는 강원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²⁶⁾

원주는 서울과 근접하고, 또한 감영 소재지로서 지방의 도회였으므로 토착세력의 상경과 낙향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었다. 예컨대 土姓인 원주 원씨 사마시 급제자 총 150명 가운데 원주 거주자는 51명으로, 그 숫자와 비슷한 153명과 144명의 급제자를 낸 해주 최씨와 진주 정씨 경우는 본관지에 거주한 자가 각각 6명과 1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원주 원씨의 토착성을 대변한다. 그리고 급제자 62명 중 23명이 원주 거주자인 원주 이씨의 경우도, 65명을 배출한 전주 김씨 가운데 본관지에서 급제한 자가 1명, 그리고 62명이 나온 光州 정씨는 8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로 보아서, 토착성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지라도, 원주 토성의 강인함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주가 서울과 근접하였기 때문에 토성들이 본관의 토착기반을 유지하면서 상경종사하기에 편리하

다(『科擧臚錄』 2, 숙종 4, 정월 12일); 『숙종실록』 32, 24년 10월 12일(계축); 『숙종실록』 55, 40년 8월 29일(무술)

21) 『科擧臚錄』 2, 숙종 8년 11월 21일; 같은 책, 숙종 14년 2월 6일.

22) 위의 책, 숙종 13년 5월 11일.

23) 『科擧臚錄』 3, 영조 27년 12월 30일.

24) 1836년 강원도 흥천에서 치러진 향시에서는 생원과 진사를 각각 45명씩 모두 90명을 초시 급제자로 뽑았다. 원주 22명, 강릉 19명, 춘천 18명, 흥천 11명 등 모두 12군현에서 급제자를 내었다(『江原道史』(역사편), 1995, 924-32면). 이는 강원도의 지역 중심지인 3곳과 기타 다른 군현의 위세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흥천에서 11명이 나왔고, 횡성 등지에서는 4명 이하가 나왔다는 것은 시험 장소의 이점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25) 『성종실록』 225, 20년 2월 4일; 『중종실록』 51, 19년 9월 18일(기묘)

26) 『성종실록』 220, 19년 9월 27일(정해)

였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관지를 떠나 上京從仕하면서 在京士族화하였던 비토성들도 원주에 다수 입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시 급제자 300명 이상을 낸 전국적인 대성관 30개중에는 원주의 유력 성관 9개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주 정씨, 덕수 이씨, 초계 정씨, 풍산 홍씨 등 유력 성관의 총급제자도 134명에서 298명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즉 급제자 배출 전국 순위 1위부터 68위 사이에 원주 유력 성관 15개가 들어 있다. 결국 이것은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원주로 많이 내려왔음을 뜻한다. 따라서 원주의 유력 성관은 출사의 성향이 강하였고,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은 원주에서 급제자가 다수 배출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나. 교육적 요인

과거는 실질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었다라든가 개인의 능력에 입각한 공개경쟁시험이다. 따라서 급제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응시자의 지적 능력과 자질이었으며, 이것은 오랜 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양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조건이 좋을수록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다수 급제자를 낸 지역은 교육 환경과 학문 분위기의 면에서 일단 다른 곳보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말선초의 향교가 지닌 교육적 기능은 큰 편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모든 군현에 향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향교가 있었던 원주는 이런 면에서 교육적인 혜택을 일찍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원주는 이미 조선전기부터 하삼도에 못지않게 향학에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곳으로 손꼽혔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강릉밖에 인재가 없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²⁷⁾ 그리고 이 두 곳은 풍속이 학문을 숭상하고, 인재를 가르칠 만한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도 서적을 지원해 주었다.²⁸⁾ 그러나 중종대에 이르면, 다른 군현처럼 원주의 향교도 교육적 기능을 크게 상실한 듯하다.²⁹⁾

또한 조선초기부터 泰齋 柳方善처럼 유명한 학자가 이곳에서 講學하였고,³⁰⁾ 또한 사림파의 거두로 유명한 金安國이 여주에 낙향해 있었을 때 그의 제자가 된 인물도³¹⁾ 나온 것으로 미루어 원주의 학문 분위기와 교육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 좋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주는 牧이자 감영 소재지로서 교육 업무와 그 감독 업무까지 관장하던 감사와 목사가³²⁾ 상주하다시피 하던 곳이라는 점이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학문적 자질을 갖춘 관리로서 유생

27) 『성종실록』116, 11년 4월 16(병인)

28) 『성종실록』167, 15년 6월 15일(경오)

29) 『중종실록』94, 36년 2월 18일(을해)

30) 그의 제자로 유명한 자들이 서거정, 한명회, 강효문, 권람이었다. 이들은 비록 중앙귀족의 자제였을지라도, 유방선이 영천에서 그곳의 학자들에게 강학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원주에서도 역시 제자들을 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1) 대표적인 인물이 정종영으로 사마 양시와 문과에 급제하였다(원주문화원, <정종영신도비문> 『원주 원성 향토지』, 1976). 그러나 그가 김안국의 훈도를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2) 『세종실록』18, 4년 11월 14일(정묘); 『세조실록』12, 4년 4월 24일(신사); 『세조실록』22, 6년 11월 9일(신해)

이나 교생 교육을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선초에 조정이 훈도관과 교수를 임명하고 파견한다거나, 혹은 그들이 이탈할 때에도 원주는 다른 군소 군현보다 家戶 등 조건이 좋았으므로 유리하였다고 본다.³³⁾

이와 같은 교육적 환경은 분명히 지역의 학문 분위기를 진작시켰을 것은 의심할 바가 없을지라도, 조선전기까지만 하여도 원주 지역의 학문 성숙도는 다른 선진지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마시 급제자 숫자에서 경상도의 상주와 선산은 물론 강원도의 강릉에게도 뒤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향교 교육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³⁴⁾ 특히 재지에 기반을 둔 사림파들이 학문적 실력을 바탕으로 대거 급제한 중종대와 선조대에 원주는 이런 곳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숫자만 합격하였다. 과거 급제 자체가 지역의 학문 발달을 뜻하지는 않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원주가 다른 지역보다 급제자를 많이 내놓기 시작하였던 때는 17세기 후반부터이다. 이때부터 원주에 거주하거나 직간접적인 연고를 가진 유명한 학자와 문인이 다수 있었다. 韓百謙을 비롯해서 許厚와 丁時翰과 같은 학자들, 그리고 金昌一, 金世濂 등이 그들이다. 이런 학자들은 원주 양반사회에 자극을 주며 학문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것이다. 이미 17세기초에 건립된 元天錫을 모시는 七峰書院을 賜額書院으로 만들려는 운동이 벌어졌으며, 허후와 정시한과 김창일이 죽은 다음에 陶川書院과 陶東書院과 翠屏書院이 건립되는 등 양반사회가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어나갔다.

그런데 원주에서는 유력한 학파나 학맥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 사대부의 학문 경향은 대체적으로 居敬窮理보다는 詞章, 또는 科文에 치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희의 자손들이 지정면 간현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19세기 이후 현달한 가계의 종손인 이태원 씨 덕 소장 300여 책은 대부분 경전류, 백과사전류, 교지 등 관문서류, 詩冊類 등이며 성리학에 관련된 전적은 찾기가 어렵다. 이것으로 당시 원주 사대부의 학문 경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전해 주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정조 17년 강원도 유생의 학문을 진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춘당대에서 제술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강원감사 윤사국이 추천한 유생을 살펴보면, 經功生이 8명, 功令生이 74명, 그리고 오죽헌 주인의 후손 12명이었다.³⁵⁾ 즉 경서를 주로 공부한 유생보다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한 유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서도 강원도, 좁게는 원주의 학문 경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관보다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던 성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시한의 자손이 대부분이지만, 나주 정씨 일족은 거의 대대로 34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인구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단히 높은 급제율이다. 달리 말하여 소수의 혈족집단이 다수의 혈족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급제자를 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 분위기와 환경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정시한의 자

33) 『세종실록』6, 1월 11일 15일(을묘); 『세종실록』20, 5년 4월 22일(임신); 『성종실록』51, 6년 1월 8일(무오)

34) 『중종실록』94, 36년 2월 18일(을해)

“강원 관찰사(江原觀察使) 김섬이 올린 서장(書狀)에, (중략) 신이 이 고을에 당도하여 향교에 나아가 알성(謁聖)한 다음 교생(校生)을 강학(講學)했더니, 책 한 권도 통하는 자가 없고 제술에서 합격한 자도 없었으며 학교의 정무도 전혀 닦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천거를 받아 수령이 된 지 6년 동안 하나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니 목사 최항(崔沈)은 파출하고 쓸 만한 인재를 다시 선발하소서.”

35) 『정조실록』37, 17년 4월 9일(신미)

손들은 陶東書院과 廣巖祠를 설립해서 정시한을 배향하는 한편 교육도 실시하였다.³⁶⁾ 그리고 나주 정씨 못지 않게 많은 급제자들이 나온 청주 한씨와 풍산 홍씨도 그 혈족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을 중시하는 가풍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양반사회의 형성과 변화

가. 조선전기 양반사회의 형성

16세기 이전(1447 - 1588년)까지만 하여도, 급제자 41명 가운데 토성인 원주 원씨, 원주 이씨, 익흥 이씨, 원주 고씨가 아닌 자는 9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 전주 이씨와 김해 김씨를 제외한 장수 황씨, 평창 이씨, 횡성 고씨, 청주 곽씨, 진주 유씨, 충주 안씨는 총 급제자가 1 - 2명에 불과하였다. 아마 현전하지 않는 사마방목에는 이들 외에도 여러 入來한 성관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주 이씨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면,³⁷⁾ 그들은 주천 조씨, 임진 김씨, 원주 변씨, 초계 정씨, 안동 권씨, 영월 신씨, 여양 진씨, 목천 상씨, 우봉 이씨, 남양 홍씨, 평해 황씨, 예안 이씨, 평강 채씨, 창원 황씨, 문화 유씨, 주천 안씨, 청송 심씨, 충주 유씨 등으로 수많은 성관이 원주 이씨와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전기의 모든 사마방목이나 다른 자료들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입래 양반 성씨들의 족세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전기 원주 양반사회의 형성과 세력 분포를 대체로 말해 준다. 즉 16세기까지만 하여도, 원주의 토착 양반사회는 토성인 원주 원씨와 원주 이씨가 주도하였으며, 다른 성씨집단은 소수에 그쳤고, 그나마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세력이 매우 부진하게 된 예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원주의 토성에는 원씨와 이씨 외에도 여러 성씨들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원주의 성씨들을 살펴보자. 두 자료에 기재된 토성은 元·李·安·申·金·石으로 동일하다.³⁸⁾ 이 가운데 원씨와 이씨는 유력한 토성으로 조선시대 내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주 토성인 이씨는 원주 이씨와 益興³⁹⁾ 이씨로 구별된다.⁴⁰⁾ 17세기에 축조된 묘갈이나 원주 이씨족보상에

36) 도동서원은 정시한의 문집인 『우담선생문집』의 연보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이며,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

37) 원주 원씨의 족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성씨들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통혼권도 넓기 때문에 두서를 잡기 위해 그보다는 단출한 원주 이씨 족보를 조사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성씨들은 조선전기에 원주 이씨와 여러 대에 걸쳐 여러 명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가문으로 원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문들이다.

38) 이수건은 고려시대 원주 토성으로 元, 李, 安, 金을 들고 있다(『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193-4면, 297-8면 참조). 따라서 이 성을 제외한 다른 토성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생각된다.

39) 고려 충렬왕 17년(1291) 글안의 군사를 방어한 공으로 원주가 익흥도호부가 되었는데, 이읍호를 관향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익흥 이씨가 이때 나왔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원주 이씨에서 갈려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40) 사마방목 CD-ROM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주 이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필자가

이들은 서로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설사 고려시대에는 동일한 혈족이었다고 하여도, 조선시대에는 혈연적으로 완전히 무관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 다른 토성인 안씨는 조선초기에 향리신분도 있었고,⁴¹⁾ 그 가운데는 양반신분으로 상승하기도 한 예도 있었던 것 같다.⁴²⁾ 사마방목에는 두 명의 원주 안씨들이 연산군대와 명종대에 급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주지는 한 명은 불명이고 다른 한 명은 경기도 교하이다. 그리고 김씨는 이미 중앙정계 고위직에 진출해 있었고,⁴³⁾ 사마시 급제자도 39명이지만, 원주에서는 김씨를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원주 신씨로서 1명이 연산군대에 급제하였지만,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점은 같은 해에 급제한 원주 석씨 1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원주를 본관으로 하는 서씨와 석씨가 각각 광해군대와 경종대에 1명씩 합격하였으나, 거주지가 거창과 인천이다. 본관 기록에 착오가 일어난 예인데, 아버지는 예천 윤씨이나 아들은 원주 윤씨로 기재되어 있어 어떤 것이 정확한 본관인지 알 수가 없으며, 두 명 모두 풍덕에 거주하였다. <지리지>에 亡來姓으로 실린 崔씨는 <승람>에 來姓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 지역에서는 이 崔씨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단지 1918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원주최씨세보』만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조 峙는 고려말 典法判書로 原州侯에 봉해졌다. 그리고 그 손자부터는 무반직으로 진출하였고, 함경도 길주와 명천에 묘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기 어렵다. 아마도 조선초기 徙民이나 군인으로 함경도로 갔거나, 邊씨처럼 賜姓을 받을 때⁴⁴⁾ 본관이 원주로 된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원주에 거주하던 원주 고씨 1명이 1568년 진사에 급제하였고, 그의 동생도 이미 전년에 진사에 합격하였지만, 거주지가 방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의 부친인 高斗明이 원주 이씨 교도공파 17세 榮國의 장인으로 원주 이씨 족보에 실려 있는데, 본관이 황성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원주 고씨들은 본래 황성 고씨로 원주로 分貫하였다가 다시 본관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같은 예는 원주 속현인 주천의 토성 趙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주 이씨 교도공파의 파시조인 趨의 부인이 주천 조씨인 울진 현령 조발의 딸이었다. 그런데 원주 이씨 족보에는 “今 舍譜平壤”이라고 써 있다. 주천의 토성에는 안씨가 있는데,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元昊와 함께 원주로 낙향하였다고 하는 현감 權琛의 손자 사위가 안씨였다. 이 외에 尹씨와 盧씨, 그리고 余씨에⁴⁵⁾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결국 조선초기와 전기의 원주 토성 가운데 원씨와 이씨만 그 후에도 건재하였다.

16세기 전반 원주에서는 토호품관이 매우 득세하였다. 품관들이 향리·서원·관노 등과 자신의 비를 강제로 혼인시켜 그 소생과 자손을 사천으로 만들던 폐단이 조정에서 큰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들은 향리 등을 강제적으로 지배해서 부역과 조세를 면탈하였다. 향리 등은 이런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품관의 비부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원주나 그에 못지않게 심하다고 지목된 경상도 의령의⁴⁶⁾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가 강하

이 가운데 익흥 이씨가 분명한 3명을 구분해서 익흥으로 본관을 수정하였다.

41) 『세종실록』49, 12년 8월 21일(기축)

42) 『성종실록』131, 12년 7월 20일(계사)

43) 『성종실록』12, 2년 10월 7일(을해)

44) 賜姓을 받은 邊安烈은 元傳의 玄孫女 사위였다. 그러나 그가 원주나 원씨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알 수 없다.

45) 余씨는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고,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 가는 길옆에 있는 고묘의 비갈에 “余姓系原州”라고 써 있다. 이 비는 경종 3년(1723)에 세웠다.

46) 『중종실록』80, 30년 11월 6일(계해)

던 군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런 토호의 무단은 조정에서도 문제가 되어, 실권자 김안로 등은 강원도관찰사 남세웅의 건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종모법을 원주와 의령에는 적용하지 않고 대신 종부법을 시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⁴⁷⁾ 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두 지역 토호품관의 발호가 너무 심하고 다른 곳을 경계하기 위해서 종부법을 채택하게 되었다.⁴⁸⁾

그리고 원주의 재지세력은 수령과도 마찰을 빚었다. 수령의 행정이 자기들의 의사와 이해에 맞지 않는다면, 수령을 비난하거나 심하면 죄에 빠뜨려 그만두게 만드는 사나운 풍속을 가졌다고 지탄받았다.⁴⁹⁾ 그래서 토호품관의 불법 행위 조사를 감사나 수령에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의 관원을 경차관이나 어사를 파견해서 조처를 취할 정도였다.⁵⁰⁾ 그렇지만 조사를 담당하였던 강원도 도사 홍덕연은 중도에서 파직당하고 말았는데, 혹시 원주 토호품관이 반발한 결과가 아닌지 추측된다.⁵¹⁾

이와 같은 원주에 대한 조정의 논의와 결정에는 원주의 양반 상호간의 갈등, 또는 중앙정치세력과의 마찰도 개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중종은 김안로가 실각한 다음에 원주와 의령만 종부제를 실시한 까닭을 김안로가 원주의 호강한 품관을 미워한 데에서 찾았다. 또한 명종 10년(1555)에 일어난 을묘왜변 때 전라도 수사로 있던 元續이 달량진에서 패전하고 죽었는데, 그 벌로 삭탈관작은 물론이고, 다시 가산까지 적몰하였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장본인은 척신인 윤원형으로서 그의 첩인 정난정의 부친 정윤겸이 원주에 살면서 원적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⁵²⁾ 즉 초계 정씨와 원주 원씨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두 성씨들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⁵³⁾

나.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변화

원주의 토성 외에 입향한 성관들이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엽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급제자를 내었다고 추측되는 성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7>에서 보듯이, 1543년 김해 김씨를 필두로 평창 이씨, 단양 우씨 등이 최초의 급제자를 내었다. 이렇게 16세기에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성관의 숫자는 모두 8개이며, 이후 17세기는 34개, 18세기는 13개, 19세기는 22개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17세기와 19세기에 다수의 성관이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다. 다시 반세기별로 구분을 하면, 17세기 전반에는 14개, 후반에는 20개, 그리고 19세기 전반에는 7개, 후반에는 15개 성관이 나왔다. 이처럼 새로운 성관이 다수 나왔다는 사실은 새로

47) 『중종실록』78, 29년 11월 7일(기사); 『중종실록』86, 32년 11월 4일(기묘)

48) 『중종실록』80, 30년 11월 19일(병자); 같은 책, 동년 동월 22일(기묘); 『중종실록』81, 31년 1월 7일(계해)

49) 『중종실록』82, 31년 6월 22일(을사)

50) 『중종실록』81, 31년 1월 24일(경진)

51) 『중종실록』88, 33년 10월 5일(을사)

52) 『명종실록』18, 10년 5월 23일(병진)

53) 명종대 척신세력으로 小尹과 李樛과 沈家가 있었는데, 김우기의 연구(<조선 명종대 척신세력의 성격> 『한국사연구93』, 1996)에 따르면, 소윤에 정난정의 종형 감사 정준이, 그리고 이량 세력에는 찬성 원계겸이 각각 속해 있었다. 또한 정난정의嫡姪인 정종영도 이량 때문에 오랫동안 散班으로 있었다고 한다(<정종영신도비명>). 이와 같은 중앙정계의 대립은 향촌사회까지 연장되기 마련이었다.

운 양반들이 원주에 입향하였거나, 양반사회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17세기에 최초 입격자가 나온 이후 10명 이상이 급제한 유력 성관이 토성을 제외한 15개 중 11개 성관임을 볼 때, 조선후기 원주의 양반사회는 17세기에 그 원형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성관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지만, 급제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가정하면, 11개 성관 가운데 평산 신씨와 풍산 홍씨를 제외한 9개 성관의 최초 급제자가 17세기 전반에 나온 것으로 미루어, 조선후기 원주 양반사회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16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양반 성관이 대거 입향하여 17세기에 원주에 터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조선전기에 형성된 원주 양반사회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17세기에 첫 급제자를 배출한 11개 성관 가운데 몇 개의 입향 시기와 계기를 간단히 살펴보자.

원주에 입향한 청주 한씨로서 사마시 급제자를 낸 파는 네 개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 들어온 두 파는 韓汝弼의 두 아들인 孝胤과 孝純의 자손들이다. 한여필은 柳灌의 조카인 柳滄의 작은사위로서 정종영과는 동서 사이였다.⁵⁴⁾ 한여필은 음사로 벼슬길에 나섰다가 중추부 경력을 끝으로 원주 부론면 노림리로 들어와 선조 4년(1571) 67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따라서 이들이 원주에 자리 잡은 때는 16세기 후반임을 알 수 있다.⁵⁵⁾ 그리고 1633년 가장 먼저 생원이 된 자손은 한효순의 손자 태일이다.⁵⁶⁾ 한효순이 광해군대에 우의정으로서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깊게 연루되었기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 이들은 원주 등 각지로 낙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으로 부상하였던 한백겸과 한중겸의 자손도 이 뒤를 이어 원주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들이 익대좌리공신 서평부원군 韓啓禧의 아들인 士武의 자손들인데 반하여, 한계희의 또 다른 아들 士信의 자손들도 원주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이들과 혈연상 거리가 먼 韓應寅의 자손도 사마방목에 다수 보인다.

전주 이씨는 여러 파가 섞여 있었다. 高陽副正 李億孫의 세 아들 가운데 진사 李惟敏은 원주 원씨 元希孟의 사위로 원주에 거주하였다. 원천석의 현손인 원희맹이나 그의 선조들이 연속 중앙 고위관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종친과 혼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유민의 두 아들은 1576년과 1588년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그 자손에서도 대를 이어 여러 명의 급제자가 나왔다. 그런데 이들보다 늦게 17세기에 원주에 들어왔지만, 더욱 많은 입격자를 낸 전주 이씨가 坡谷公派를 중심으로 한 潭陽君派였다. 파곡공 李誠中은 선조대의 명신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셋째 아들 유침과 손자의 묘가 원주에 있고, 그의 셋째 사위가 한중겸의 아들 한희일이었다. 그의 손자 李命雄은 광해군대에 원주에 은거하다가,⁵⁷⁾ 인조반정 이후 조정에 들어가 경상감사를 역임하였다. 명웅의 부인이 원계신의 딸이었으므로 원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또한 이성중의 손녀가 황성 조씨 조린의 아들인 좌랑 조공립의 며느리였다는 점에서 원주와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중의 증손자대부터는 원주에 정착하였던 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이들에서 많은 급제자가 나왔다.

54) 한백겸, 『구암집』 <선조통훈대부행문천군수 증의정부영의정부군행장>; <정종영신도비명>

55) 그런데 1568년 생원에 급제한 그의 아들 한효순의 거주지는 서울이었고, 맏아들 한효윤의 세 아들인 한백겸, 한중겸, 한중겸도 1579년 식년 사마시에 모두 급제하였는데, 거주지가 서울이다. 아마 서울과 원주를 오가며 생활하였던 것 같다.

56) 한태일은 정종영의 둘째 아들 정열의 사위이다.

57) 『전주이씨담양군파세보』, 1958년.

나주 정씨 都憲公派가 처음으로 원주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⁵⁸⁾ 임진왜란 때에 평북 가산에서 병사한 도헌공 丁胤福은 용인에 안장되었지만, 그의 다섯 아들 중 맏아들 好約은 선산이 있는 고양과 용인을 떠나 원주에 살다가 묻혔다. 그가 1601년 38세의 나이로 죽은 것을 보면, 왜란을 피하여 원주로 내려왔다가 죽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양자 彦淑도 예천에 살다가 말년에 원주로 와서 죽었다. 둘째 아들인 好恭의 증손자도 원주 거주자였다. 그리고 정윤복의 3자인 好寬의 아들 彦璜은 안동부사를 그만둔 뒤, 원주 부론면 법천리에 터를 잡았다가 마침내 강원 감사를 끝으로 이곳에서 살았다. 정언황은 직제학 趙正立의 사위인데, 조정립은 횡성 조씨로 이 근방에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⁵⁹⁾ 따라서 정언황은 아마 선대의 유산과 처가 연고를 기반으로 원주에 移居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윤복의 부친 丁應斗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나주 정씨들이 원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들의 혈연적, 경제적 기반이 원주에 있었다고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들 세 파 가운데 가장 번성하였던 파는 언황의 아들인 時翰의 자손들이었다. 특히 나주 정씨의 전국 총 급제자 134명 중 43명이 원주에서 합격해서 32%에 달하였다. 즉 원주는 이들의 유력한 씨족 기반이었다.

밀양 박씨도 이전부터 원주에 거주하던 파와 17,8세기에 새로 들어온 파로 나뉜다. 원주목사를 지낸 朴純義의 자손들이 여러 명 급제하기 전에 밀양 박씨로서 원주에 거주하던 급제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 또 박순의와는 혈연적으로 관계없던 밀양 박씨들도 이후에 급제하였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과 고양에 연고를 두었던 선곡공파인 박순의가 원주에 정착하게 된 기반은 그의 처가인 초계 정씨에서 나온 것 같다. 그의 장인은 정종영의 아들이며 평산부사를 지낸 鄭穀이었다. 또한 18세기 전반부터는 병조좌랑을 지낸 朴孝男의 자손들이 대거 입격하였다. 그의 네 아들과 손자들은 서울에 거주하였지만, 그 후대는 원주에 거주하며 사마시에 급제한 자들이 많이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였던 그들이 원주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효남의 형인 박종남의 딸이 원주 이씨 이유청의 부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박종남의 부친인 부사 박응 이전에도 서울에 거주하던 재경사족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김해 김씨로서 1543년에 급제한 김자규와 1606년부터 급제자가 다수 나온 김해 김씨 安敬公派의 선대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로 혈연적으로 멀었다고 추측된다. 본래 양주에 살던 안경공파로서 원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인물은 승문원 참교를 지낸 金世鈞이었다. 그러나 거주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있던 농장에 묻힌 것이다. 그 네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각각 양주와 괴산에 묻혔지만, 그들 자손들도 셋째와 넷째 아들의 자손들처럼 원주에 거주한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의 손녀가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였다. 김세균의 아들들의 생몰년이 16세기 전반과 후반에 걸쳐 있으므로, 김해 김씨 안경공파는 이 시기에 원주에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마시에 급제한 김세균의 세 아들을 비롯해서 손자들의

58) 나주 정씨와 관련된 기술은 『나주정씨도헌공파보』와 나주정씨월헌공파종회가 편찬한 『월헌집』을 참조.

59) 조정립이 벼슬을 그만두고 교하로 물러났다는 기록으로 보아(『우담선생문집』권지구, <선비정부인횡성조씨세계행적기>, 참조), 그곳에 선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본관지인 횡성과 가까운 원주에도 장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의 묘는 법천리에서 옆 동리인 손곡리로 가는 길 중간 쯤에 있을 뿐더러 그의 숙부인 조린과 그의 자손들의 묘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다가 광해군대의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조린이 이곳에 寓居하였고, 이어서 그 일족도 원주에 정착하였다(<조린묘비명>『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7). 1689년과 1705년에 사마시에 급제한 조학과 조연, 그리고 조영휴가 조린의 5,6세손이다.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원주 정착은 불안정하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산 이씨 良景公派가 원주에 처음 정착하였던 때는 16세기 전반으로 추측된다. 李之蘭은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그의 고조는 李季甸이었고, 일족들은 대대로 중앙관직을 맡았다. 그의 처가가 원주 원씨였다는 점이 그가 원주로 온 계기였다. 그의 장인인 元璿은 원천석의 고손이며 세조 때 홍문관 교리를 지낸 원보륜의 아들이었다. 이지란은 원주에 입향한 다른 재경사족 출신 가문과는 달리 횡성 고씨, 초계 정씨, 원주 이씨, 횡성 조씨, 원주 원씨 등 원주 토착 양반가문과 곧바로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그의 셋째 아들 李壑(이희)가 北人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에는 침체를 면하지 못하였는데, 증손자 익의 딸이 이괄의 아들 李旆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익이 이괄의 난 때 희생을 당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영조대에는 이수익의 네 아들이 모두 사마시에 급제하는 일도 있었다.

강릉 최씨가 원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초계 정씨가 있었다.⁶⁰⁾ 정종영의 만사위인 崔景祥은 본래 본관지인 강릉과 가깝던 양양에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⁶¹⁾ 그의 아들 가운데 원주 외갓집에 남은 인물이 최기백이다. 17세기에 그의 아들과 손자 5명이 사마시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름으로써 전성기를 누렸다.

앞에서 잠시 말했지만, 연안 김씨가 원주로 들어오게 동기는 정치적인 것으로, 영창대군의 큰 외삼촌인 김래의 부인인 초계 정씨가 아들 둘을 이끌고 고향으로 피신함으로써 원주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원주 근처의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는 등 학문을 닦거나 가문을 일으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음서로 벼슬길에 나선 자들은 있었을지라도, 18세기 중엽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과거 급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원주에 입향한 유력 성관들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확고한 기초를 잡았고, 이 시기에 형성된 양반사회는 조선후기 내내 커다란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몇 개 성관에서는 부침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모두 43명이 급제한 전주 이씨는 특히 숙종대에 40%에 가까운 17명이 입격하였지만, 기간이 긴 영조대는 겨우 2명에 불과하였다. 이후에도 물론 19세기 말까지 급제자는 나오고 있지만,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4명이 나온 밀양 박씨도 숙종대에서 영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22명이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지만, 정조대와 순조대에는 각 4명으로 주춤하였다. 대신 평산 신씨가 영조대 이후 꾸준히 급제자가 나왔으며, 덕수 이씨도 그런 편이다. 그렇지만, 원주 원씨와 원주 이씨는 숙종 말엽인 17세기초부터는 숫자가 감소해서 영조대 각각 3명과 1명, 정조대에는 각각 1명씩밖에 급제자를 내지 못하다가, 원씨는 순조대에 7명, 다시 현종대와 철종대에 각각 1명만을 내었지만, 이씨는 순조대 1명을 제외하고는 두 왕대에 한 명도 입격시키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토성의 쇠퇴가 18세기와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원주에 새로 들어온 성관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렇다고 해서 입향한 성관이 모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17세기에 최초 급제자를 낸 성관 가운데 흥양 오씨, 창원 성씨, 예산 이씨, 예안 이씨, 해주 오씨, 합천 이씨, 순창 조씨, 양천 허씨, 재령 이씨, 창원 황씨, 광산 김씨, 목천 상씨, 곡산 한씨, 강릉 김씨, 원주 변씨, 배천 조씨, 청주 경씨, 성주 이씨, 팔거 도씨, 사천 목씨, 광주 이씨, 예안

60) <정종영신도비문> 참조.

61) 1606년 생원시에 합격한 그의 아들 최기백의 거주지는 양양이며, 기백의 형인 최기백은 1612년 생원시에 급제하였는데 거주지가 원주였다.

김씨, 파평 윤씨 총 23개 군소 입향 성관 가운데 성주 이씨와 창원 황씨를 제외하고는 5명 이하, 대개 1 ~ 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원주 양반사회에 착근하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거주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족세가 미미하였을 것이다. 이는 동일시기에 많은 급제자를 낸 11개 유력 양반 성관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똑같이 외지에서 원주로 입향한 양반 성관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유력 11개 성관의 입향조, 또는 가까운 직계 祖孫이 유력한 인사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주 한씨는 전통적인 훈구세력, 전주 이씨는 종친 및 고위관리가문, 역시 나주 정씨와 밀양 박씨와 한산 이씨 등도 고위관리가문이었으므로 이러한 조건은 원주에 정착하고 유력 가문으로 행세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반면 23개 성관의 최초 입격자들의 부친 직역을 보면, 유학이 10명이며 학생이 5명이다. 이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1개 유력 성관 가운데 원주의 토착세력과 혼인 등으로 연결되는 성관도 적지 않다. 아마 23개 성관도 역시 이러하였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유력 성관과 통혼할 수 있는 양반가문은 그들과 家格이 비슷하여야 하였을 것이므로 23개 성관과 혼인한 동일한 혈족 중에서도 우월한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11개 유력 성관은 그렇지 못한 군소 입향 성관보다 원주 양반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인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입각해서 원주 양반사회가 이들 소수 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43명이 급제한 나주 정씨는 정언황이 그의 아들 정시한과 함께 부론에 정착한 이후, 그 자손들이 대부분 원주에 거주하였어도 그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의 대대로 급제자가 줄을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급제자가 나왔다는 점은 혈족집단의 크기와 급제자 숫자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높은 급제율 현상은 무엇보다 경제력과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성과인 과거 시험 결과가 향촌사회에서의 지위와 일치한다고 하기에는 무리한 면도 있다. 또한 나주 정씨의 통혼 대상에는 원주 토착 양반들이 그다지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충주와 여주 등 남한강 유역과 서울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 같다. 이렇게 거주지 양반사회와는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와는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원주는 강원감영의 소재지였으므로 지리적, 인맥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이 가문의 위세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마시 급제와 지역사회에서의 권력의 관계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표7> 입학 성관에서 최초의 급제자가 나온 해

김해 김	1543	평창 이	1546	단양 우	1549	전주 이	1576	형성 고	1576
청주 곽	1579	진주 유	1585	충주 안	1588	경주 김	1606	홍양 오	1610
강릉 최	1612	원주 변	1612	밀양 박	1615	초계 정	1615	남양 홍	1618
한산 이	1618	평산 신	1666	청주 한	1633	안동 권	1633	창원 황	1635
예산 이	1639	예산 이	1644	해주 오	1651	합천 이	1652	양천 허	1654
순창 조	1654	여흥 민	1654	나주 정	1660	재령 이	1666	창원 황	1669
광산 김	1675	목천 상	1675	곡산 한	1675	강릉 김	1682	배천 조	1683
청주 경	1683	성주 이	1684	팔거 도	1684	사천 목	1687	풍산 홍	1687
창령 성	1689	광주 이	1693	예산 김	1696	파평 윤	1699	순창 조	1710
우계 이	1710	덕수 이	1711	전주 유	1711	경주 이	1721	해평 윤	1721
선산 김	1735	안악 이	1740	순흥 안	1750	연안 김	1750	의령 남	1756
함평 이	1783	영해 신	1792	전의 이	1803	임천 조	1809	영일 정	1813
청송 심	1814	경주 손	1816	수원 백	1843	반남 박	1848	진천 송	1859
아산 박	1864	충주 지	1870	한양 조	1870	동북 오	1873	진주 강	1873
추계 추	1873	해풍 김	1880	진도 김	1882	대구 서	1882	인동 장	1882
해주 최	1882	여산 송	1891	인천 채	1891	풍양 조	1891		

<표8> 상위 가문(10명 이상 급제) 급제자수의 세기별 변화

	원주 원	청주 한	전주 이	나주 정	밀양 박	원주 이	덕수 이	초계 정	평산 신	풍산 홍	안동 권	한산 이	김해 김	연안 김	강릉 최	여흥 민	남양 홍	도합 (A)	총 급제자 (B)	A/B (%)
15C전반	1																	1	2	50
15C후반	2					1												3	3	100
16C전반	4					3						1						8	12	66.7
16C후반	8		4			6												18	24	75
17C전반	5	1	3		1	3		4			1	2	2		3		1	26	35	74.3
17C후반	9	11	18	6	7	4		3	2	1		1	2		3	2		69	98	70.4
18C전반	5	6	3	6	10	4	1	7	1	4	2	1	4		1		1	56	77	72.7
18C후반	2	8	3	5	10	1	6	2	6	5	5	7		2	1	2		65	77	84.4
19C전반	8	10	3	13	5	1	4	4	9	6	6	3	3	7	3	1	5	91	116	78.4
19C후반	7	7	8	12	1	1	12	1	2	4	5	4	2	4	1	6	3	80	129	62
도합(C)	51	43	42	42	34	24	23	21	20	20	19	18	14	13	12	11	10	417	573	72.8
C/B(%)	8.9	7.5	7.3	7.3	5.9	4.2	4	3.7	3.5	3.5	3.3	3.1	2.4	2.3	2.1	1.9	1.7			

전국적으로 19세기에는 사마시 급제자가 대량으로 나와, 13,490명이 전 시기 급제자 총수의 33%를 차지하였다.⁶²⁾ 그 가운데서도 고종대에는 7,027명이 급제해서 17.29%를 차지하였다. 숙종대는 두 번째로 많은 5,401명의 급제자를 냈지만, 숙종의 재위 연間は 46년에 이르렀다. 그리고 설행 횟수도 27회로서 고종대의 17회보다 많지만, 각 시험에 합격한 급제자수는 현저히 적다. 즉 고종대에는 생원과 진사 각 100명이라는 액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초액 현상은 1858(철종 9)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1894년 조선왕조 마지막 식년시에는 무려 1,333명

62) 최진욱, 앞의 논문, 21-3면.

이 급제하였다. ‘家家마다 진사가 나며 戶戶마다 급제가 날 때 조선이 망한다’는 『鄭鑑錄』의 말 그대로이다. 그만큼 과거 부정이 극심하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고종대의 문란상은, 1874년 민비가 세자를 낳음으로써 더욱 심해졌다. 1874년부터 시작하여 1894년 시험에 이르기까지 세자와 같이 甲戌년에 태어난 자는 웬만하면 생원과 진사가 되었다.⁶³⁾ 아예 1894년에는 갑술생들은 初試만 통과하면 합격시켰으므로 생원 278명, 진사 1,055명이 탄생하였다. 여기에는 왕실과 척족의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가세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서울 거주자들이 대폭 감소한 근본적인 이유도, 생원과 진사는 더 이상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백범 김구와 같은 젊은이는 저자거리와 같은 과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고종대의 超額 현상의 원인을 과거 부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근원에는 조선사회를 지탱하던 신분제와 관료제의 동요와 붕괴가 깔려 있었다. 종전에는 과거 응시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던 사회세력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욕구가 조선사회체제의 붕괴 단계에서 거세게 표출된 결과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던 新班과 舊班의 鄉戰은 원주에서도 일어났다.⁶⁴⁾ 영조대에 시행된 選武軍官制도 역시 원주 사회에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심지어는 都事를 역임한 양반이 아전과 장교들에게 눌러 극지에 유배되는 일까지 일어났다.⁶⁵⁾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원주 양반사회가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몰락해서 이미 농민과 크게 다르지 않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종 8년(1871) 가을 강원감사가, 公都會를 설행하여도 시험 보러 오는 유생들이 모두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어서 왕래하기 어려우므로 명년으로 연기하자는 장계를 올려 허락을 얻었던 실정이었다.⁶⁶⁾ 따라서 고종대 대량 급제자 배출 현상에서는 과거 부정 외에 학문적, 특히 경제적 실력을 갖춘 새로운 사회세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원주의 사례를 살펴보자. 19세기 급제자는 245명으로 급제자 총수의 42.8%에 해당한다. 1850년부터 사마시가 폐지된 1894(고종 31)년까지 급제자는 129명으로 22.5%에 달한다. 특히 고종대에는 105명(18.3%)이 생원과 진사가 되었다. 원주에서도 초액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지만, 전국 급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급제자 비율은 오히려 19세기 전반 2.14%에서 후반에는 1.65%로 떨어졌고, 또 같은 기간 강원도의 비율이 5.06%에서 6.00%로⁶⁷⁾ 올라간 것 과도 상이하다. 이 시기 급제자가 급증한 지역의 보기로 廣州(64명에서 107명), 전주(32명, 69명), 강릉(29명, 66명), 함흥(39명, 150명), 평양(103명, 238명)을 들 수 있는데, 이전에는 급제자가 적게 나온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1,871명, 1,256명)과 안동(132명, 116명)처럼 전통적으로 급제자가 많이 나오던 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원주도 117명에서 129명으로 겨우 12명 늘었을 뿐이다. 이렇게 원주에서는 전체적인 추세와는 달리 급제자가 급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후반, 특히 고종대에는 급제자가 많아진 외에도 급제자를 최초로 배출한 성관이 14개나 새롭게 등장하였다. 19세기에 처음 출현한 성관이 모두 22개인데, 그 가운데 고종대 31년간에 14개가 집중되었고, 철종대에는 1개, 현종대에는 2개, 순조대에는 5개 성관이 새로 등장하였을 뿐이다. 그 14개 성관 가운데

63) 이종일, <조선후기 사마방목 분석>『법사학연구』11, 1990, 24-42면.

64) 『정조실록』32, 15년 3월 15일(기축)

65) 『정조실록』52, 23년 11월 17일(신미);같은 책, 동년 12월 3일(병술)

66)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71, 46면에서 재인용.

67) 최진옥, 위의 논문, <표 5-13>, 152면.

데 급제자가 각 2명이 나온 진주 강씨와 대구 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성관에서는 각 1명씩만 급제하였다. 급제자 1명만 배출한 성관이 45개인데, 그 중 1/3이 31년간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이들의 족세와 사회적 위상을 짐작케 한다. 즉 비유력 가문과 최초 배출 가문의 대두가 고종대 변화의 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성관을 상세히 조사한다면, 19세기 후반에 도달한 조선사회의 발전 단계와 향촌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 거주자로 고종대에 입격한 105명 가운데 17개 유력 성관에 드는 급제자수는 62명 59%에 이른다. 19세기 전반 77.8%, 18세기 후반 84.4%, 17세기 후반 70%로, 유력 성관의 비율이 이처럼 낮았던 적은 없었다. 이처럼 고종대에는 유력 가문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유력 양반 성관들도 급제자수가 대폭적으로는 축소되지 않은 수준에서 기존의 위치를 고수하였다는 점에서는 조선 양반사회의 강고함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사회세력 상호간의 판도도 생각보다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유력 성관 급제자의 출자가 여전히 종래의 핵심적인 家系에 속하였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9세기말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와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사마방목의 분석을 통하여 원주 거주 양반의 사마시 급제 경향과 원주 양반사회의 형성과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급제자에 대한 통계 분석보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보조 자료를 찾고, 더 나아가 양반사회의 실상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지만, 결과는 보잘 것이 없다. 다만 종전까지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원주 양반사회의 원형을 찾는 시론적인 연구 내지는 가설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원주가 배출 순위 전국 4위에 해당하는 573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게 하게 된 요인에는, 우선 강원도에 배정된 액수가 다른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과거제도의 이점, 원주의 지리적 행정적인 편리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17세기부터 괄목할 만한 숫자의 급제자가 나오게 된 데에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 재경사족의 원주 입향과 정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지역 양반사회가 성장하고 그들의 문화와 학문이 발달하였던 배경이 있었다. 또한 서울과 영호남에서 17세기 후반 이후 합격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 입향 양반가문의 世系 파악, 양반사회 및 문화의 발달 등의 면에서 더욱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원주 양반사회는 소수의 유력 성관들이 주도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입향 양반도 다수 있었지만, 토성인 원주 원씨와 이씨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렸고, 17세기 이후는 입향 성관이 유력한 양반가문으로 부상하였다. 사마시 급제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유력 성관은 86개 전체 성관 중에서 17개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573명 급제자 가운데 72.8%인 417명을 합격시켰고, 또한 그 가운데 상위 5개 성관인 원주 원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나주 정씨, 밀양 박씨가 37%인 212명을 점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사회가 극히 불평등하고, 양반사회 내부에서도 과두성이 극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조선전기에 형성되고 17세기에 들어와 새롭게 그 틀을 바꾼 원주 양반사회는, 비록 그 내부에서 소수 성관의 부침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기본 판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특히 그 후반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만, 사마시 급제자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그 변화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전히 소수의 유력 성관이 건재함을 과시하며 많은 급제자를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종대만 하여도 최초로 급제자를 낸 성관이 14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원주 양반사회, 더 나아가 조선 양반사회의 동요와 붕괴를 대변한다.